

## 反辟스主義的 CH氏流의 認識, 批判, 規定論을反駁함(一)

朴衡秉

가, 序論

一

우리가 韓方醫士에게 病을 오리기 시려하는 것은 何故이나? 漢方醫師를 醫師로서 밋지 아니하는 까닭이다. 그러면 漢方醫師를 왜 밋지 아니하느냐? 彼等은 病을 科學的으로 實際的으로 診察하거나 研究 分析하여서 그 病菌이 무슨 原因으로서 發生하였는가 함을 發見한 後에 비로소 그 病者에게 治療를 加하지 아니하고, 科學的 研究를 撇나서 觀念的으로 或은 宿命的 或은 機械的으로(傳來 醫書대로)病을 治療하는 까닭이다. 그럼으로 漢方醫師에게 病을 보이는 것은 危險千萬한 까닭이다. 醫學을 工夫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또 醫術의 經驗이 업는 사람이라도 舊 醫書(例方藥合編)한 卷만 가지면 醫師노릇을 할 수가 있다. 그에다가 觀相보는 法이나 조금 兼하면 名醫의 稱號까지라도 엇기 쉬웁다. 그러나 元來가 非科學的이요, 宿命的인 故로 病者의 死生을 宿命的 運命的 僥倖에 맏길뿐이요, 自信잇는 科學的 斷案을 내리지 못한다. 그러면 우리가 新式醫師(俗語에所謂洋醫)는 미들 수 잇느냐? 勿論 미들 수 있다. (新式醫師 中에도 엉터리 醫師가 업는 것은 아니지만은 大體로 보아서)何故로 미들 수 잇느냐? 新式醫師는 病을 治療하기 前에 爲先 科學的으로 實際的으로 病者를 診察하여 病의 原因을 研究分析한 後에야 비로소 病者에게 治療를 加하기 始作한다. 그럼으로 新醫는 病者의 生死를 宿命的 僥倖에 맏기지 아니하고, 科學的으로 自信잇는 斷案을 내리운다.

二

이와 가티 우리는 社會形態를 볼 새에도 觀念的으로나 或은 抽象的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. 換言하면 우리는 社會形態를 分析解剖할 새에, 非 科學的 漢方醫師의 精神及 方式을 撇나서 科學的 新式醫師의 精神及 方式을 取하여

야 한다. 그리하여야 그 社會의 病菌이 어디 잇스며 또 그 病菌이 무슨 原因으로서 發生하였는가함을 科學的으로 하여서 그 社會의 將來에 對한 斷案을 自信있게(틀림이 업시)내릴 수가 있다.

그런데 요사이朝鮮이라는 重病者를 治療하기 爲하여 各方面으로 群集한 新舊醫師가 잇나니 옛던 醫師(新舊 中)의 診察이 果然朝鮮이라는 重病者의 그 重 症原因을 科學的(抽象的이 아닌)으로 發見하여서 朝鮮將來에 對한 自信있는 科學的 斷案을(宿命的이 아닌) 내리우겟느냐? 우리는 重大視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.

우리는 이 斷案(卽 診斷書)에 依하여 朝鮮이란 重病者를 治療하여갈 役軍의 責任이 잇는 砵답이다. 이에서 나는 最近 아니 昨年가을 以來의 論調인 CH氏流의 診에 對하여 認識 批判 規定-큰 誤解가 잇는 것을 發見하고, 그 錯誤點에 對하여 反駁코자 한다.